



필리핀 투자 · 프로젝트 뉴스

2009. 7.15, Bi-Weekly, No. 24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마닐라

Focus

필리핀 정부 관광산업 육성 추진: 경기침체기에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4% 증가

투자? 프로젝트 동향 정보

필리핀 에너지부, 2009 상반기만 17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 부여 유력
2008 필리핀 대기업 성적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13% 증가

Project 정보

San Lorenzo Wind Project

Mindoro 풍력발전 Project

Luzon Landfill Gas Project

Visayas 바이오매스 에너지 Project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1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2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경제 단신

美의회 필리핀산 의류 수입시 관세면제 추진

필리핀 에너지부 6~7개 석유 탐사/개발 프로젝트 계약자 선정 추진

DMCI, Calaca 화력발전소(600MW) 낙찰, 합작 추진

Thomson Reuters, 필리핀 내 대형 콜센터 오픈

호주계 Otto Energy, Nido Petroleum사, Galoc 유전 지분 추가 확보

EDC, 필리핀 지열발전 프로젝트 입찰 참여 추진

캐나다계 필리핀 광산기업 구리수출 본격화

한전 필리핀 법인, 일리안 발전소 확장 추진

Conal Holdings사, Mindanao에 석탄화력발전소(200MW급) 건설 추진

Hydrocore사 Ifugao에 수력발전소(4.5MW급) 건설 추진

CIIF 바이오디젤 사업 진출 위한 합작 추진

ADB, 필리핀에 2010~2012년 중 20~30억 달러 지원 계획

필리핀 정부, 경전철 환승역 건설에 15억페소 투자 승인

2009 필리핀 외국인투자 신고 3.8% 증가 전망



▣ 전문가 칼럼

국제거래 클레임 예방과 대책: 철강거래를 중심으로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를 기대하며

▣ 주요 경제 지표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법률회계 고문 무료 상담
무역투자 정보포탈(Global Window) 안내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토지/웨어하우스 매각 정보: RELIANCE FARMS MARILAO PROPERTY

● 작성 : 필리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전화 : +63-2-893-3244
● 팩스 : +63-2-817-3369
● 홈페이지 : www.kotra.or.kr/manila
● 이메일 : manila@kotra.or.kr , hanskim@kotra.or.kr

Focus

필리핀 정부 관광산업 육성 추진
- 경기침체기에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4% 증가 -

- 필리핀 관광부(DOT)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09.1분기 필리핀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30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
 - 국내 관광객은 13%, 외국인 관광객은 4% 증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적었던 것은경기 침체, 신종플루 영향이 작용, 하반기부터 관광객 증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09.1분기 필리핀 관광지 외국인 및 내국인 방문 숫자는 각각 38만3608명, 85만773명이었음. 한편 '08.1분기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은 각각 36만 7973명, 75만9893명이었음.
- 방문 선호지는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세부(Cebu)가 18만4790명이 방문해 전체의 32%를 차지했으며 보라카이(Boracay) 6만3903명(12%), 다바오(Davao, 11.9%), 캐마리네스 서(Camarines Sur, 11%), 잠발레스(Zambales, 7%), 보홀(Bohol,5%) 순이었음.
 - 국내 관광객의 팔라완(Palawan) 지역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 City) 및 코론(Coron) 방문이 392% 증가했는데, 이는 마닐라(Manila), 세부(Cebu) 및 카티클란(Caticlan)과 말레이시아의 코타 키나발루(Kota Kinabalu)로부터의 신규 항공노선 취항에 힘입은 것임.

□ 필리핀 지역별 관광객 방문현황(2009.1~2)

관광지역	관광객(명)			증감률(%)		
	내국인	외국인	총계	내국인	외국인	총계
Cebu	184,790	237,449	422,239	4.72	0.51	2.84
Boracay	94,127	63,903	158,030	6.72	-6.09	1.14
Davao City	140,487	15,981	156,468	2.39	1.99	2.35
Camarines Sur	115,244	24,976	140,220	34.56	103.79	43.23
Zambales	63,466	25,252	88,718	15.05	5.61	12.2
Bohol	47,526	24,350	71,876	6.84	18.98	1066
Palawan	32,909	12,028	44,937	391.99	-27.36	93.29

자료: 필리핀 관광부(MOT)

- 참고로 '08년 전체 관광객은 3,091만 명이었고, 이 중 최대 국가는 한국으로 61만 명(전체의 19.48%)에 달했으며, 미국, 일본 등이 뒤를 이었음.

□ '08년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순위	국가명	관광객(명)	비중(%)
1	한국	611,629	19.48
2	미국	578,246	18.42
3	일본	359,306	11.44
4	중국	163,689	5.21
5	호주	121,514	3.87
6	대만	118,782	3.78
7	홍콩	116,653	3.72
8	캐나다	102,381	3.26
9	싱가포르	100,177	3.19
10	영국	87,422	2.78
11	말레이시아	69,676	2.22
12	독일	55,303	1.76
	총계	3,091,993	100

- 필리핀 정부는 관광산업이 고용창출,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산업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고 '09년 경기부양책에도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기반조성에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 및 민간공동의 투자확대 추진, '09.1분기에도 호텔 및 리조트 신규 오픈에 힘입어 주요 관광지역의 객실 수가 크게 확충된바 있음.
- 필리핀 관광산업에 2009.1분기중 총 80억 페소(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총 1,231개의 객실 증가, 1,286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관광부는 집계

□ 2009.1분기 관광산업 주요 투자프로젝트

- 32억 페소를 투자한 Imperial Palace Water Park, Resort and Spa 오픈으로 616개 객실이 추가돼 세부(Cebu) 지역 객실 수는 1만4,792개로 4% 증가했으며, 78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발생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4

- 850만 페소를 투자한 Cebu 북부지역의 The San Remigio Beach Club은 국제컨벤션 시설을 갖췄으며, 올 여름 및 휴가 시즌에 맞춰 Shangri-la 호텔의 Boracay Resort and Spa도 217개의 고급 객실을 추가로 확장, 488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음.
- 이외 Palawan 지역의 Amanpulo Tourism Enterprise Zone에도 7억6000만 페소를 투자해 28개 빌라촌이 신설됐으며, 수도권인 Metro Manila에는 Makati에 Legend International's Park가 신규 오픈
- 올해 말까지 다음의 호텔, 리조트에 총 2,315개 객실이 추가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1,946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발생 기대

□ 2009년중 추가 개설예정인 호텔 및 리조트 현황

지역명	호텔, 리조트	객실수
Metro Manila	Manila Ocean Park	120
	The Picasso Serviced Residences	136
	Newport Marriott Hotel	342
	Maxims Hotel	178
Cebu	Radisson Hotel	400
Boracay	Crowne Regency	449
	Phonex Hotel	130
	Boracay Regency Lagoon	120
	Seven Stones	100
	Grand Water	100
Puerto Princess	Microtel Inns and Suites	50
Tagaytay	Summer Ridge	108
Albay	Discover Bay Misibis	82

- 필리핀 관광부(DOT)는 증가하는 관광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09.1분기에만 총 5건, 63억 페소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서명
- Palawan의 Diwaran섬에는 2억 달러를 투자, 55ha 면적에 고급 spa and resort 신축. 2009~12년중 건축 및 단계적 운영 개시 예정
- Subic에는 Harbor Yacht Services(HYS) Philippines가 기존 해양시설에 3,600만 페소를 투입해 리조트 및 레스토랑 건립 추진

- 필리핀 최대 18ha에 달하는 Lago del Rey라는 인공호수 프로젝트가 Camarines Sur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으며, 총 2,000만 페소가 투입됨.
- 이 외에도 야생동물 및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개발되고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숙박,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프로젝트 동향 정보

필리핀 에너지부, 2009 상반기만 17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 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인센티브 부여 유력 -

☐ 2008.12월 재생에너지법 발효 후 금년 들어서만 필리핀 에너지부는 총 17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 이중 13개 프로젝트는 법인 등록 기관인 SEC(기업등록감독위원회)에 이관. 필리핀 내 법인설립 시 모든 기업은 SEC에 등록해야 하며,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은 에너지부 승인을 거쳐 SEC에 등록토록 되어 있음.

- 이외 4개 프로젝트는 투자인센티브 부여 위해 BOI(투자위원회)로 심사 이관된 상태임.

☐ 에너지부 에너지 관리국(Energy Utilization & Management Bureau)의 Mario C. Marasigan 국장은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의사 표명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고 언급. 17개 승인 프로젝트의 분야별 추진 기업은 아래와 같음.

바이오매스	Asiapac Green Renewable Energy, Smith Bell Mini-Hydro, Gravou Power, Nindoro Occidental Resources, SKI Mini-Hydro, Pangea Green Energy Philippines, Alpaparay Resort and Development, Asian Energy Systems, Mecaro Rio Vista Energy Corp. Magma Energy Resources
수력	Apayao Resources Development
풍력	Amihan Energy

☐ 이외 BOI(투자위원회)에 이관되어 투자인센티브 부여 심사를 받고 있는 4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기업/분야	사이트 지역	발전용량
Global Green PLC (biomass)	Panay	17.5MW
	Pangasinan	35MW
	Nueva Ecija	35MW
Hacienda Bio-Energy (biogas)	필리핀 전역 25개소	각각 75MW~100MW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4

Lucky PPH International (rice hull power plant)	Alicia, Isabela	3.6MW
Sure Eco Energy Philippines (biogas)	San Pedro, Laguna Lipa, Batangas Natividad, Nueva Ecija Sumilao, Bukidon	각각 34 KA

- 한편 미국계 에너지 친환경기술 전문기업인 Bizminded 사 (2007년 캘리포니아 설립)가 Western Visayas 지역개발위에 바이오디젤 정유공장 건립 계획서 제출
 - 동사 COO겸 CFO인 Mr. San Juan은 초기 55백만불을 투자, 연간 2천만 갤런의 바이오디젤을 정제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 국내외에 수출하여 매년 2.5억불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11만 헥타 농장 조성, 코코넛, 해바라기, 자트로파 등을 재배하여 연료로 사용 예정임. 1만여 고용 창출 기대
- Alcantara Group이 Cagayan De Oro시에 추진중인 바이오에탄올 플랜트 는 지역사회 반대에 직면
 - 동 플랜트 투자규모는 21억페소(약 48백만 달러)로 매년 10만 리터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규모로 건립 예정
 - 카가얀유역연맹(Kagay-an Watershed Alliance) 측은 동 프로젝트 자체에는 찬성하나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동 플랜트 부지가 강 유역 내 있어 환경 파괴 위험이 있고 환경평가도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임. 동 프로젝트의 환경정합성승인서(ECC)가 조만간 발급 예정
- 작년말 재생에너지법 발효, 금년 6 월 시행령 발효로 필리핀 재생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들의 프로젝트 추진이 활발해 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2008 필리핀 대기업 성적표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13% 증가 -

- 2008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대기업들의 매출, 순익 실적은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필리핀 유력 경제주간지인 BizNews Asia 7월호는 PSE(필리핀 증권거래소) 자료를 인용, 2008년 필리핀 대기업 성적표 발표

- 이에 따르면 상장사 246개사 중 재무제표를 제출한 233개사의 전체 순익(profits, net income)은 1,989억 페소로 전년보다 29.4% 감소, 매출(revenues)은 2조 67백억 페소로 전년대비 12.8% 증가.
 - 필리핀 증권거래소 Francis Lim 사장은 233개사 중 68%인 159개사가 순이익, 32%인 74개사는 손실실을 기록했다며,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기업들이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강조. 특히 2009.1분기 기업실적이 호전된 것에 비춰볼 때, 2009년에는 매출, 수익성면에서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
 - PSE지수(PSEi)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순익(net income)은 1,488억 페소로 전년대비 22.1% 하락, 동지수 구성기업중 순익이 증가한 기업은 SMC(124.2%), Megaworld Corp(25.3%), Robinsons Land Corp(25.2%), Alliance Global Group Inc(18.7%), SM Investments Corp(15.6%) 등임.
 - 업종별 순이익 증감 정도를 보면 부동산 분야가 가장 양호하여 전년도 순익 수준을 유지, 이외 금융(-41.1%), 지주회사(-39.6%), 광물&석유자원(-38.3%), 서비스(-34.7%), 제조업(-13.8%)은 모두 순익 감소를 기록했다.

- 기업별로는 PLDT (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 통신), BDO(Banco de Oro Unibank Inc. 금융), Petron Corp.(정유) 3개사가 매출, 순익, 자산면에서 최상위 기업으로 떠올랐음.
 - PLDT 순익(net income)은 전년보다 3.8% 하락했지만 346억 페소로 여전히 1위 기록, 순익 하락은 환차손, 정보통신 비즈니스에 지출 증가 등에 기인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4

- 필리핀 정유 시장의 40%를 지배하는 Petron은 상반기 유가 강세에 힘입어 2,680억 페소로 매출(revenue) 1위 기록, 그러나 40억페소의 순손실을 기록했음.

- 명목 순이익 증가 면에서는 San Miguel Brewery Inc(SMB), Cosmos Bottling Corp., Pitel (Pilipino Telephone Corp), SM Investments Corp(SMIC) 등이 상위 순위 차지

- Petron 최대 주주로 올라선 San Miguel Corp. (SMC) 사장이자 Petron 회장인 Ramon Ang는 공격적 사업다각화를 추진 기존 식음료 분야에서 에너지, 금융, 통신,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음. 일례로 SMC는 필리핀 최대 배전기업인 Meralco 지분 40%를 취득, Ramon Ang은 현재 Meralco사 이사회 의 부회장 역할 수행, 이외 각종 도로건설, 운영 프로젝트 참여 추진)

- San Miguel사는 순익(193.5억 페소) 2위 기록, 그 뒤를 SM Investments (140억 페소), Pitel (Pilipino Telephone Corp., 113.5억 페소), Globe Telecom Inc. (112.8억 페소) 등이 있고 있음.

- San Miguel 수익 증가는 국내외 패키징 사업 지분 매각, KSA Realty Corp 매각, San Miguel Brewery Inc(SMB) 기업공개(IPO), Quezon City property 매각 등에 기인

- 필리핀 최대 배전기업인 Meralco사는 1,946억 페소 매출로 Petron (2,680억 페소)에 이어 매출 2위 기록, 매출 3 위는 San Miguel 1,834억페소 그뒤를 SM Investments (1,534억 페소), PLDT (1,527억 페소)사가 잇고 있음.

- 필리핀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매출, 순익 규모와 경영실적은 아래와 같음.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4

필리핀 매출 상위 30 대 기업

(단위: 백만페소, %)

순위	기업명	'07	매출액	'07 대비	순익
		순위	-2008	증가율	-2008
1	Petron Corp.	1	268,030	26.6	-3,978
2	Manila Electric Co.	2	194,547	-4.8	2,800
3	San Miguel Corp.	3	183,417	17.5	19,348
4	SM Investments Corp.	5	153,359	20.4	14,003
5	Phil. Long Distance Telephone Co.	4	152,727	4.7	34,635
6	JG Summit Holdings, Inc.	6	103,765	12.3	-694
7	First Philippine Holdings Corp.	11	85,680	45.9	1,192
8	First Gen Corp.	14	80,032	55.5	644
9	Ayala Corp.	7	79,108	0.4	8,109
10	Pal Holdings, Inc.	9	73,916	12.4	-12,605
11	San Miguel Purefoods Co., Inc.	10	71,130	14.5	77
12	Globe Telecom, Inc.	8	65,964	-3.1	11,276
13	Banco de Oro Unibank, Inc.	13	56,091	3	2,182
14	Metropolitan Bank & Trust Co.	12	55,457	-1.8	4,408
15	San Miguel Brewery, Inc.	45	49,051	301	10,042
16	Universal Robina Corp.	16	48,926	19.7	-109
17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15	45,564	-5.4	6,423
18	Jollibee Foods Corp.	17	44,519	14.3	2,319
19	Alliance Global Group, Inc.	18	36,109	18.6	3,910
20	Ayala Land, Inc.	21	33,749	31.3	4,812
21	Aboitiz Equity Ventures Inc.	19	30,127	6.7	4,121
22	Int'l Cont. Terminal Services Inc.	26	28,718	48.9	2,859
23	Benpres Holdings Corp.	20	26,523	0.3	2,927
24	PNOC Energy Development Corp.	22	23,506	-0.8	1,308
25	ABS-CBN Broadcasting Corp.	23	23,271	14.1	1,383
26	DMCI Holdings Inc.	31	22,187	38.8	1,688
27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25	20,768	4.5	2,154
28	Pilipino Telephone Corp.	32	19,357	27.2	11,346
29	SM Prime Holdings, Inc.	28	18,547	10.4	6,412
30	Philippine National Bank	24	18,271	-8.4	1,108

자료: PSE BNA Research

주: Net Income, ROE, ROA 50 대 기업 순위는 BNA 통해 확인 가능

▣ Project 정보

- 하기 프로젝트는 CDM 프로젝트 Developer 인 CAFIS, TAREC, CBNet Business Consultancy Services 와 협력,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contact:임성주 차장/Tel: +63-2)893-3244, 1183/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 신뢰성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San Lorenzo Wind Project

The San Lorenzo Wind Project is located in the Municipality of San Lorenzo, Guimaras 25km from the capital town of Jordan. The project started in August 2007 when a 40m meteorological mast tower was installed at the site.

A Pre-feasibility Study was completed by a Technical Advisor in November 2008 based on eleven months of data(Sept 2007 – Jul 2008) which indicated that area has a moderate wind climate and can support an estimated total capacity of 54MW.

The project which is estimated to cost \$125.3 million is programmed to be operational by 2012.

Power in Guimaras Island is currently supplied by the National Power Corporation from the Grid through the 13.2kV submarine cable owned by the local distribution utility, GUIMELCO, and by the 3.4MW diesel power plant of Trans-Asia located within the island. Presently, Guimaras island only has a peak demand of 5.9 MW and is projected to reach only 6.7MW by the start of commercial operation in 2012. This means that the proposed 54MW wind farm will have excess capacity that will have to be exported from Guimaras to the Cebu-Negros-Panay Grid. The existing submarine cable must be upgraded to 69kV to handle this capacity.

The Renewable Energy Law with its recently promulgated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mandates that the National Grid Corporation and all Distribution Utilities shall include the required connection facilities for RE-based power facilities in thei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Development Plans.

Mindoro 풍력발전 Project

Executive Summary

HES 'Code Name', is developing a 15 MW Wind Energy Power System (WEPS) Project(the "Project") at Puerto Galera, Oriental Mindoro that will supply electricity to Oriental Mindoro Electric Cooperative, Inc.(ORMECO) as the primary off-taker, and to Occidental Mindoro Electric Cooperative, Inc.(OMECO), a potential secondary off-taker in the project expansion phase. The WEPS Project will supply approximately 23% of Oriental Mindoro's annual demand starting in 2009. HES plans to complete development of the Mindoro WEPS Project in 3Q2008, and achieve commercial operation in 3Q2009. The Project will supply 38-42,000 MWh per year to ORMECO, and potentially 15-16,000 MWh per year to OMECO in the future, via the NPC-SPUG 69 kV sub-transmission line at a net price less than PHP 5.00/kWh, which is PHP 1.30/kWh less than the Subsidy Approved Generation Rate (SAGR) and ~PHP3.30/kWh less than the True Cost Generation Rate (TCGR) of diesel energy.

- HES have signed a Production-sharing Contract for OSW Energy Resources - Pre-Commercial Contract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on April 9, 2004, granting HES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a wind power project at the Puerto Galera site.
- HES have established the availability of economically developable wind resources at the Puerto Galera site. Wind data recorded over a 2-year period indicate good wind conditions with an average annual wind speed >7.0 m/s at 30 meters. HES's wind resource assessment has been reviewed and confirmed by an independent Consultant.
- Two (2) 60-meter meteorological towers were installed in November 2007 at the Puerto Galera site. Wind data recorded by the two met towers during the first 5 months confirm average wind speeds >8.0 m/s at hub-height (60 m).
- BreezElectric has completed an optimum WEPS design for Mindoro which utilizes the most appropriate wind turbine technology for that site. The wind turbine units are pitch-controlled,

- The 25-year ORMECO Energy Sales Agreement (ESA) was signed in April, 2006. The net Tariff of ~PHP 4.90/kWh (including the Interconnection Fee) is substantially less than the SAGR (~PHP 6.20/kWh) and the TCGR of DG energy (>PHP 8.00/kWh)
- HES and NPC-SPUG negotiated and signed the Transmission Services Agreement (TSA) in 2Q2007
- HES has obtained Local Government Unit (LGU) endorsements and approvals for the WEPS Project in Puerto Galera in 2007
- The Board of Investments (BOI) has approved and registered the Mindoro WEPS Project as a priority pioneer project in June 2007. Wind energy development is a priority investment under the BOI 2004 Investment Priority Plan, and upon registration with BOI, is entitled to the financial and other incentives
- The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IEE) of the Puerto Galera WEPS site was completed. The Environmental Certificate of Compliance was issued by DENR in October 2007
- BreezElectric LLC, HES's parent company, has signed and executed a Letter of Intent (LOI) in June 2007 with a Local Partner for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Mindoro Wind Project.

Luzon Landfill Gas Project

Project Name	Landfill Gas to Power
Country	Philippines, Luzon
Project Background	The landfill owners are looking for a Build-Operate-Transfer (BOT)/Build-Own-Operate (BOO)/performance contracting type of agreement for the engine-generator system that will supply power to the grid; a local company will operate the facility. The owner has commissioned a similar project in the Philippines that is now operational.
Project Type	Renewable Energy/Biogas
Project Scope	Initially designed for 4-MW Capacity, up to 6-MW in the future
Emission Reductions	Estimate: 18,000t/yr(grid) for 4MW Methane emission avoidance t.b.d.
Funding Method	Estimate: Capital cost for 4MW equipment US\$6.65 Million
Project Details	4 sets of 1MW engine-generators. Customer is considering Jenbacher or Waukesha reciprocating engines or Capstone Micro turbine technology. The balance-of-Plant (BOP) such as the digester system and electrical system are excluded from this request.

Visayas 바이오매스 에너지 Project

In response to the adverse impact of a power shortage, AOPC 'code name' will establish a 23-MW "clean" energy base load to augment the precarious supply from the electric cooperatives.

After winning a bid for 25 MW capacity out of 90 MW being offered by the Panay-Guimaras Power Supply Consortium, AOPC shall construct and operate 7 power plants in 5 provinces in Western Visayas to supply electricity to 7 electric cooperatives (EC) using biomass mainly rice straw and rice husk as feedstock.

Our confidence level in the sustainability of supply of our feedstock is further bolstered by the results of our Resource Assessment Survey that we had conducted last October 2008 and the Calorific Test Results which showed the high heating values of this feedstock. The feedstock covered are the rice straws, rice husks, woodchips, sugarcane waste or trash, biogases, coconut shell and husks.

AOPC targets to start commercial operation by 01 January 2011. By this time the PSA between the National Power Corporation (NPC) – the country's largest power producer owned by the government, and the ECs would have expired. Our Company will be replacing almost 30% of the power supply vacuum that will be left by the expiration of the NPC-EC Contract.

The signing of Renewable Energy Act No. 9513 has ushered additional economic gains for the project due to its attractive incentives, e.g. 7 year income tax holiday, duty free importation and tax exemption for Carbon Credit Revenues. This will further enhance the expected return on the invested capital especially with the inclusion of an estimated annual 78,000 tons of CO2 reduction (1.56 Gt CO2 over 20 years) via th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Name	Waste to Energy Initiative involving Clean Energy Base Load Power Plant Project
Location	Panay – Guimaras - Negros Regions (Western Visayas Region 6)
Installed Capacity	114MW
Annual Electricity Generation	684, 087, 552 KWH
Plant Type	Regenerative Cycle Steam Turbine Power Plant
Commercial Operations Date	January 01, 2011
Plant Life (Years)	20 Years
Construction Period	12 Months
Fuel	Biomass
Electricity Tariff	US \$ 0.12 per KWH
Total Project Cost	US \$ 285.0 Million

The Project is scalable under the following Phases of Project Implementation

Phase	Initial /Additional Installed Capacity (in MW)	Total Installed Capacity (in MW)	Project Cost
I	114	114	US\$ 285M(Php 13.68B)
II	45	159	US\$ 112.5M(Php 5.40B)

필리핀투자·프로젝트뉴스 Biweekly, No.24

- 하기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광산투자 프로젝트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의 신뢰성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1

Area Coverage	1,603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5 VI
Date File	November 5,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7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s. Susan P. Lim

구리, 금, 은 광산 Project 2

Area Coverage	1,235.25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3 VI
Date File	October 1,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4.5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r, Quirico G. Pe

- 하기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표 투자 컨설팅 Firm (Private Equity Adviser) 인 Argosy사와 협력, 제공하는 FDI(직접투자)분야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 신뢰성과 KOTRA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Miner 'Code Name' is a private mining company with projects in Leyte, Philippines

Controls 40,000 ha of claim applications (two large mining permits just granted).

Completed 33,440m of drilling in 3,597 holes.

Reserves of 10 million tons of measured and 192 million tons of indicated recoverable magnetite concentrate (> \$100 Billion).

Miner is working on three independent but synergistic projects

Magnetite sand mining and magnetite concentrate processing

Sponge iron production and downstream conversion to steel and vanadium

Ferronickel production

All projects require:

Little capital and exhibit very low operational costs (bottom 25%).

Profitable at the lowest iron and nickel prices over the last 10 years.

Estimated revenue of US\$244 million in Stage1 and US\$ 2 billion in Stage2 and pretax profit of US\$149 million per year for Stage 1 and US\$1.2 billion for Stage2.

Miner obtained rights to 50% JV over decommissioned cement plant

With minor modification will be used to produce Sponge Iron and Ferronickel. Consequently, capital costs kept to a minimum.

Ferronickel Operation

Two lines allocated (lines 1 & 2). Line 1, 90% rehabilitated, Price is US\$890 (5.3% Ni) and cost is US\$339/ton, Can make money even if ferronickel price goes down to US\$20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US\$3,271/ton and lowest US\$574/ton.

Sponge Iron Operation

Price is US\$350 and cost is US\$247/ton, Can make money even if sponge iron price goes to US\$190/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US\$800/ton and lowest US\$200/ton.

Significant upside on downstream Operations

3million steel productions for local market in a Stage 2 integrated steel and vanadium operation using low cost geothermal power generated near to the magnetite production area. Cash costs amongst lowest in world – significant vanadium byproduct credits

A low risk brownfields restart, not a greenfields start-up

INCO was exporting 1 million tons/year and was highly profitable
Operations closed in 1975 due to ban on beach sand mining
Restart due to new Mining Act and growth in worldwide demand.

Favorable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ow population density and economically depressed area
Mining process is simple, no chemicals. Land is restored to a better condition within a 6 month period
Crop yields increase and farmers generously compensated.

Economic Factors: (November costs and prices)

Mining/processing cost in lowest quartile on world cash cost curve (US\$15/ton).
Current price is US\$47/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was US\$75/ton and the lowest US\$19/ton
Magnetite concentrate production rate per year of up to 10 million tons is practicable
Off-take agreement for initial supply of 1.2 million and up to 3.6 million tons for export and 1.0 million ton for domestic processing.

▣ 경제 단신

美의회 필리핀산 의류 수입시 관세면제 추진

- 미의회는 'Save Our Industries Act of 2009(HR3039)'를 제정, 미국산 섬유로 제조된 필리핀 산 의류 수입 시 관세 면제, 미국산 섬유사로 제조된 의류 수입 시 관세 감면 추진중. 동법안은 현재 논의 중으로 201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이는 미국 섬유 업계 보호 위한 것이나 동 법안 시행 시 필리핀의 대미 의류 수출이 첫째 11억불 증가, 투자유치 4.8억불(첫 1~2년 내) 증대효과 있을 것으로 필리핀 의류 협회 언급
- 필리핀은 동 법안을 계기로 필리핀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이전하는 의류 제조 기업 전진기지 'Philippine garment & supply chain city'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Favila 통상산업부 장관도 최근 중국에 기반을 둔 의류제조사들이 필리핀으로 이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 (Business World, 7.9)

필리핀 에너지부 6~7개 석유 탐사/개발 프로젝트 계약자 선정 추진

- Oca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은 7월 이후 6~7개 지역에 대한 원유 탐사, 개발 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
- 필리핀 에너지부는 2003년부터 에너지 계약자 선정 위한 일련의 입찰 수행. 이를 PECCR(the Philippine Energy Contracting Round)이라 칭함
- 입찰 참가사는 work program, financial, technical, legal document를 포함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 에너지부 contracts negotiating panel 이 제안서 심사하게 됨.
- 2008년에는 5건의 석유 탐사/개발, 4건의 지열발전계약, 4건의 석탄개발 건에 대한 입찰을 실시, 계약자를 선정한바 있음.

DMCI, Calaca 화력발전소(600MW) 낙찰, 합작 추진

- Calaca 석탄화력발전소 매각(민영화) 입찰에서 DMCI Holdings Inc 사가 최고가인 3,6 억불 제시하여 낙찰사 선정 유력. 이는 경쟁사인 태국 Banpu사 제시가(2.8억 달러) 보다 28% 높은 가격이며, 필리핀 정부가 상정한 최저 낙찰가를 상회하는 가격
- 이는 2년 전 낙찰 후 사업 포기 선언했던 프랑스계 Emerald Energy사의 당시 입찰가, 7.9억 달러보다는 낮은 가격
- DMCI 는 발전, 광산개발, 건설, 수자원 관리 사업 수행 중
- 동 발전소 매각건은 최근 세차례 유찰 된바 있으며, 이번 입찰에서도 당초 관심을 보였던 San Miguel Energy, Aboitizes. Therma Power사는 최종순간 참여 포기
- 이로써 필리핀 발전소 민영화를 주도하는 전력자산공사(PSALM)측은 2001년 전력산업 개혁법이 목표한 발전설비 70% 민영화 목표 달성에 크게 다가섰다고 평가
- DMCI는 Calaca 프로젝트 위해 J/V 희망하고 있으며, 동 발전소 정상화 시 Meralco에 169MW 등 287MW 전력 공급 가능 예정 (Business World, 2009.7.13)

Thomson Reuters, 필리핀 내 대형 콜센터 오픈

-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 Thomson Reuters社가 Taguig, McKinley Hills에 500석 규모의 대형 콜센터 오픈 예정
- 동사는 뉴욕 기반 리서치 회사로, 금융, 법률, 세무, 회계, media market, health Care 등 정보 제공, 현재 93개국에서 5만명 직원 고용 중
- 이미 금융, 비즈니스 전문인력 80명이 교육을 마친 상태며, 우수 인력 확보 위해 필리핀 대학들과도 제휴 추진 (Business World 2009.7.2)

호주계 Otto Energy, Nido Petroleum사, Galoc 유전 지분 추가 확보

- 팔라완 지역 Galoc 유전 지대는 1천만 배럴 원유 매장 추정, 현재 매일 12,000~14,000배럴의 원유가 생산(최대 생산 능력 25,000배럴)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총 석유 수요 30만배럴의 6% 수준, 매년 10억달러 이상 수입대체 효과) 2008.10월 이후 현재까지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생산
 - 생산된 석유는 국내 소비 및 한국, 태국 등지로 수출
 - 1단계 프로젝트 완료, 현재 2개 광구에서 원유 생산 중이며, 내년도 추가 2개 광구 시추 여부 검토 중
- 호주계 에너지기업인 Otto, Nido사는 각각 Alcorn Gold Resources, Petro Energy Resource 사로부터 동 유전 지분의 1.55%, 0.6%를 추가 매입
- 이로써 동 유전의 지분 구성은 Galoc Production사 (유럽계 원유거래 기업인 Vitol사가 68.6%, 호주계 Otto Energy사가 31.4% 지분 보유)가 59.84% (Otto사의 Galoc 유전에 대한 간접 지분율은 18.77%), Nido Petroleum 사 22.88%, 이외 필리핀 기업인 The Philodrill Corp 7.03%, Oriental Petroleum과 Minerals Corp 7.57%, Linapacan Oil과 Gas Power Corp 7.57% 등임. (Business World, 2009.7.10)

EDC, 필리핀 지열발전 프로젝트 입찰 참여 추진

- Lopez가 필리핀 석유공사로부터 지난해 인수한 EDC(Energy Development Corp)가 3개 지열발전프로젝트 입찰 참가 추진 중
- Aquino EDC 부회장은 자회사인 Green Core Geothermal 사 통해 오는 8월 필리핀 전력자산공사(PSALM)가 시행할 Leyte 소재 Palinpinon 발전소(192.5MW급), Negros Oriental 소재 Tongonan발전소(112MW급) 일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
 - Green Core Geothermal사는 EDC 자회사인 First Luzon Geothermal Energy 사가 최대 주주로 참여, 2009.6월 설립된 신설 법인임

- 이외 EDC는 Bicol지역 Bacon-Manito발전소 입찰에도 참여 예정이며, 동 3개 발전소 인수 시 세계 최대 지열 발전 기업으로 올라설 전망
- 3개 발전소 인수 시 EDC 발전용량은 현재의 1,194.5MW/년 (필리핀 전체 지열 발전용량의 62%)에서 1650MW/년으로 확대 가능. 이 경우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1,273 MW/년 지열 전력 생산중인 미국 Chevron사 추월 예정 (Business World 2009.7.9)

캐나다계 필리핀 광산기업 구리수출 본격화

- 캐나다계 광산기업인 TVI Resources Development사가 7월초 중국측에 4번째 구리 수출을 완료했다고 발표, 금번 수출 규모는 5,282톤, U\$ 4.5백만 달러임
- 동 구리(copper concentrate, 동정광)는 Zambonaga 지역 Canatuan광산에서 채굴된 것으로, 동 광산에서는 현재까지 20,200톤의 구리가 생산되었으며, 이중 19,124톤이 중국에 수출되어 21백만 달러의 수출실적 기록
- 한편 TVI사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최대 글로벌 동정광 거래업체 중 하나인 Swiss MRI Trading AG와 5년간 매 4~6주 단위로 5,000톤 공급계약 체결. 5월에만 5,240톤 (4.3백만 달러) 물량 수출 완료한바 있음
- 이외 ATLAS Consolidated Mining and Development Corp.社 역시 Swiss 광물거래 기업에 동정광 공급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발표
- 동사는 Cebu, Toledo 광산에서 동정광을 채굴 지난주 Swiss MRI Trading AG에 4,963톤 판매한바 있으며, 이로써 올해 동사의 동정광 수출 누계는 30,400톤 기록
- 해당 동정광의 구리 함유율은 28.6%, 이외 톤당 2.66g, 24.6g의 금, 은,구리도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올해 초 톤당 3,000 달러 수준이던 구리가격은 현재 US\$ 5,107.5 달러로 크게 상승 (Business World 2009.7.8)

한전 필리핀 법인, 일리얀 발전소 확장 추진

- Batangas 소재, 일리얀 천연가스(1,200MW급) 발전소를 운영중인 한전 필리핀 법인은 동 발전소의 확장 프로젝트 위해 일본계 기업인 TeaM Energy사와 제휴 검토 중
 - TeaM Energy는 Tokyo Electric Power와 Marubeni Corp. 합작사로 이미 Ilijan 지분 20% 소유하고 있으며, 한전 측은 TeaM측 참여비중 확대 가능하다는 입장
- 한전은 1차로 330MW급 발전용량 증설을 계획 중이나 원료인 천연가스의 충분한 확보 가능 여부가 관건임
 - 말람파야 가스유전으로부터의 가스 공급은 300MW 확장 분까지만 충족 가능 상태 (Philstar, 2009.7.5)

Conal Holdings사, Mindanao에 석탄화력발전소(200MW급) 건설 추진

- Alcantara가 주도하는 Conal Holdings사는 민다나오 Sarangani 지역에 200MW급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
- 총 투자규모는 4.5억불로 추산되며, 내년 1분기중 프로젝트 1단계, 3년 후 준공 완료 예정
 - Phase I: 1차 100MW급 발전소 건설
 - Phase II: 2차 100MW급 발전소 추가 건설, 1단계 완료 후 2년 이내 추진개시
- 2008년 기준 민다나오의 최대 전력 수요량은 1,288MW에 달했으며, 이 상태면 2016년 전력 부족사태 발생 우려, Sarangani 발전소의 2014년 1단계 프로젝트 완료 시 전력 부족사태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Hydrocore사 Ifugao에 수력발전소(4.5MW급) 건설 추진

- Hydrocore Corp.사는 2010년 Ifugao지역 수력발전소(4.5MW 급) 착공 예정, 프로젝트 규모는 4억페소(약 8.3백만달러), 공사기간은 18개월 예정
- 이미 환경적합인증 (ECC) 등 관련 허가 획득 상태
- Hydrocore 사는 EPower Technologies 자회사로 이외 Baguio, Isabela, Benguet, Palawan, Samar, Mindanao 등지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중

CIIF 바이오디젤 사업 진출 위한 합작 추진

- THE CIIF OIL Mills Group사 사장인 Mr. Arranza는 자사가 바이오디젤 사업 참여 위해 Flying V, United Coconut Chemicals, Inc. (Cocochem) 등과 합작 추진 중이라고 언급
- Davao시에 소재한 Flying V는 2007년 설립 이후 매월 2천톤의 바이오 디젤 생산 중
- 동사 회장은 CIIF와 합작 위해 생산능력을 늘려야 하며 매월 1만톤 증설 설비 건설위해 5억페소 신규 투자와 1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
- Cocochem 측도 CME(바이오디젤, coco methyl ester) 생산설비로 전환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필요하며, 매일 50톤의 바이오 디젤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외 매일 50톤의 바이오디젤 공급 능력을 보유한 Atson Coco사와의 바이오디젤 공급 계약도 체결 예정 (Business World 2009.7.6)

ADB, 필리핀에 2010~2012년 중 20~30억 달러 지원 계획

- ADB의 2010~2012년 지원계획에 따르면 對 필리핀 지원규모는 20~30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며 주요 지원 분야는 인프라 건설, 민간개발사업 참여, 천연자원관리 및 기후변화 대책 부문, 글로벌 경제위기 완화 부문 등임. (Business World, 7.10)

필리핀 정부, 경전철 환승역 건설에 15억페소 투자 승인

- 필리핀 경전철공사(Light Rail Transit Authority)의 Mr. Roble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이 메트로마닐라 주요 철도를 연결하는 환승역사 건설 프로젝트 위해 15억 페소(약 31백만불) 지출안 승인

- 동 환승역은 Quezon시 TriNoma 쇼핑몰 전면에 위치할 예정으로, 아래 노선 연결 예정임
 - Taft Avenue ~ North Avenue 노선의 MRT(Metro Rail Transit) line 3

 - Monumento ~ Baclaran 노선의 LRT 1

 - Commonwealth Avenue ~ Bulacan노선의 MRT 7

- 완공시점은 2010.6월 이며, LRT1과 MRT3는 2009.12월까지 연결한다는 목표임 (Business World 2009.7.8)

2009 필리핀 외국인투자 신고 3.8% 증가 전망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금년 1분기 투자신고액이 전년비 5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체적으로는 3.8% 증가한 4,583억 페소(약 US\$ 94.5억 달러) 투자신고가 기대된다고 전망 (4대 투자유치 기관중 BOI, PEZA 신고분만 대상)
 - BOI (Board of Investment) 유치액은 전년도 수준인 2,884억페소(약 US\$ 59억 달러), 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유치액은 9.8% 증가한 1,700억 페소(약 US\$ 35억 달러) 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Business World, 7.9)

- 이는 최근 아로요 대통령의 한국 등 해외 방문에서 투자자들로 받아낸 MOU, 중국내 의류 기업들의 필리핀으로 이전 가능성 등에 기인

▣ 전문가 칼럼

국제거래 클레임 예방과 대책: 철강거래를 중심으로

필리핀에서 소요되는 철강소비량은 연간 4백만톤 정도다. 이는 10년간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의 7천만톤과 비교하면 1인당 GDP 차이와 비슷하다. 최근 동부제철이 전기로(*CONSTEEL 방식) 방식의 쇠물(열연코일)을 생산케 되어 포스코, 현대제철에 이어 세번째 일관제철소를 갖게된 한국과 달리 필리핀에는 아직 일관제철소가 없다. 민다나오 일리간 소재 GLOBAL STEEL & TKC 등 일부 전기로가 있지만 특수봉강 및 단압밀에 불과하며, 필리핀내 수요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다.

* 콘스틸방식: 1989년 미국 뉴코어사가 최초 채택한 전기로 활용 열연코일 생산 방식. 기존 고로 방식과 달리 전기로 방식은 재생 고철 사용 가능하고 분진과 이산화탄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CONSTEEL 방식은 전기로 봉합 상태에서 측면에 예열된 고철을 주입, 에너지효율도 1/4까지 높일 수 있는 친환경 방식으로 평가

이에 필리핀에서 철강은 수출입 거래가 가장 빈번한 품목중 하나며, 국제거래를 하다보면 클레임이 발생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예방이 중재, 조정보다 최선이다'는 말과 같이 무역클레임도 실제 발생후 어떻게 처리할지 보다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철강거래를 예로 무역클레임의 예방법과 대책을 살펴보자.

클레임이란 무역거래에서 계약위반으로 손실을 본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Cry Out(부르짖다 또는 요구하다)이란 의미의 라틴어인 'CLAMARE'에서 비롯된 클레임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손실화물에 대한 클레임(Claim on damaged or lost cargo), 다른 하나는 거래관련 클레임(Business Claim)이 그것이다. 전자는 보험회사/선박회사에 배상청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함은 후자를 의미, 이것을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고도 한다.

무역클레임의 유형별 예방, 대처방법

계약상의 클레임은, 계약 및 이행상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계약 외적 요인으로 신용조사 방법, 언어, 비즈니스 관행, 도량형 차이, 또는 상대국 법규나 수입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도 발생한다.

성격별 분류

일반클레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 거래 당사자 일방의 과실/태만으로 야기되거나 제3자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마켓클레임: 매입자의 손실 규모가 경미해 평소 같으면 클레임 되지 않을 사항을 감가 구실로 삼는 경우다. 이 같은 유형은 계약 후 시장 가격 하락 시 수입대금을 낮추려는 구매자에 의해 주로 제기된다.

고의적 클레임: 거래당사자의 고의적 악용에 의한 것으로, 일례로 구매자가 애초부터 판매자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 한데서 발생한다.

형태별 분류: 형태별로는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 미달, 포장 클레임, 선적클레임, 계약 위반 클레임, 대금결제 클레임, 운송/보험 관련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철강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한번 발생시 분쟁 규모가 크다. 품질자체 불량, 변색, 변형, 파손, 함량부족 등이 원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L/C 상에 제품의 품질 결정요소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많은 공급자가 선적 후 무하자 매입을 위해 L/C상 복잡한 품질조항 삭제를 요구하는데 그대신 공장검사 증명서(Mill Certificate)나 SGS 검사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L/C 상 매입서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 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상품 검사기관

* SGS 검사: 필리핀에는 2000년 초 까지만 해도 SGS 검사가 필수 요건이었다. (일부 아프리카, 남미 국가에는 여전히 존재) 수출자가 SGS 검사 없이 수출 시 수입자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클레임을 청하는 경우 다수 있었음.

수량과부족 (Over / Shortage Shipment): 필리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으로 계약 수량과 도착 수량 불일치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철강 등 Bulky 화물은 +/-10% 또는 +/-5% 오차를 허용하는 'Franchise'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다. 'Franchise 0.5%'는 수량부족이 0.5% 초과시 클레임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포장불량 (Inferior Package): 장거리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 시 포장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철강제품은 'packing mill's final' 조건으로 생산자 측 Export Standard Packing을 따르게 된다.

규격 미달(Wrong Specification): 계약 시 정한 규격과 상이함에서 제기되는 클레임으로 제품의 크기(철강의 경우 직경, 넓이, 길이 등), 모양, 색깔 등이 대상이다. 철강은 국제규격을 따르게 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JIS(일본공업규격,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AISI(미국철강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SAE(미국자동차기술협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API(미국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등이고 이외 막강한 거래 물량을 바탕으로 GOST(러시아), GB(중국) 도 자주 사용된다.

선적(Shipment) 클레임: 계약상의 일자보다 늦게 선적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적(Trans Shipment),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관련 클레임이다.

보험(Marine Insurance) 클레임: 계약상의 부보 조건과 불일치시 발생, 분쟁 방지 위해 *I.C.C.(A) with war and strike 조건 활용 등이 바람직하다. 특히 CIF 조건에서 공급자는 구매자와 전쟁약관을 상의하고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사전 협의가 없을시 전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결제(Letter of Credit) 클레임: 수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에는 신용장과 관련 서류의 불일치, 신용장 기한과 선적기간 상이 등이 있으며, 수출자는 신용장 미개설, 변경, 지연 등과 관련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신용장 개설시도 개설은행 파산시 환어음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D/A D/P 등 추심어음 방식 결제의 경우 수입자가 고의 및 파산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이호익 자문위원
YIHO Corp. 대표이사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내년까지 1년여는 필리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내적으로는 2010.5월 대선을 앞두고 10여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현 아로요 정권의 개헌 움직임에 반대하는 야당, 재야 측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70년대까지 자타가 인정하는 아시아의 강국이었던 필리핀이 마르코스 집권 후 경제발전 후퇴를 겪다가, 최근 되살아난 성장 기초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 또는 정체 상태에 머물 것이냐의 기로에 선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선거를 앞둔 정국 불안과 일부이긴 하지만 반군들의 폭력사태, 불안한 치안 문제 등은 비경제시스템으로 필리핀 투자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남부 민다나오 무슬림지역에서는 아직도 정부군과 모로이슬람해방전선(가칭 MILF) 반군 사이에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치안 불안 및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강도행위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여행 시 '주의' 대상국 필리핀을 포함시킨 것에서 보듯이, 필리핀에 투자하려는 신규 투자가 및 여행객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치안 문제다.

이런 불안 요소는 해외투자유치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다. 2008년 해외직접투자유치 규모 면에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주요 7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사회인프라나, 노동법,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필리핀 진출고려 한국기업에 정치, 경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의 역할을 인정받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단기적인 성과는 역시 경제 분야에서 기대된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아 준비된 다양한 민관협력 노력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비즈니스 행사들이 양국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포럼, 세미나가 서울과 마닐라에서 개최되었고, 기업들도 에너지, 환경, 관광산업 등 분야에서 필리핀 정부,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정부도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 한국과 보다 긴밀한 경제적 협력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필리핀이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 투명한 정치, 경제시스템과 외국기업에 불리하지 않은 인센티브제, 유연한 고용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투자들이 서둘러 추진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권 교체 후에도 국가간 맺은 조약이나 기업들간의 계약 행위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필리핀의 경제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고, 한국기업에게도 안정적 수익원으로 작용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제이 박 자문위원
필브릿지 대표이사

▣ 주요 경제 지표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질 GDP 성장률	2.96	4.43	4.52	6.18	4.97	5.37	7.2	4.6
GDP(US\$10 억불)	72.0	78.0	79.6	86.7	98.4	116.9	135.6	145.9
GNP(US\$10 억불)	76.8	83.1	85.4	93.4	106.7	127.8	157.6	186.4
1 인당 GDP(US\$)	905	970	977	1,038	1,153.8	1,344.7	1,629.2	1712.4
1 인당 GNP (US\$)	978	1,034	1,050	1,118	1,251.2	1,470.0	1,777.0	2,061.0
수 출 (US\$ 10 억불)	32.3	35.0	36.2	39.6	40.5	46.2	49.4	49.1
수 입 (US\$ 10 억불)	29.6	33.5	37.4	40.3	47.7	53.1	55.9	56.7
연평균환율 (미\$:페소)	50.993	51.604	54.203	56.040	55.085	51.314	46.55	44.47
소비자물가 (%)	6.1	3.1	3.1	6.0	7.6	6.2	2.8	6.2
실업율 (%)	11.1	11.4	11.4	11.8	8.7	7.9	7.3	7.7
산업 구조								
- 농수산업 (%)	14.9	14.7	14.5	15.2	14.3	14	14	14.1
- 2 차 산업 (%)	32.4	32.5	32.3	31.9	32.2	32	31	31.7
- 서비스업 (%)	52.6	52.8	53.2	52.9	53.4	54	55	54.2
해외근로자 송금액 (US\$ 10 억불)	6.0	7.2	7.6	8.6	10.7	12.8	14.5	16.4f
외 채 (US\$ 10 억불)	51.9	53.6	57.4	54.8	54.2	53.4	54.9	5.39f
대외채무의 GDP 비중(%)	72.9	69.8	72.5	63.7	55.1	45.4	38.1	31.95f
외환보유고 (US\$ 10 억불)	15.7	16.4	17.1	16.2	18.5	22.96	33.75	36.04

▣ 환율동향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페소/ 달러	46.55	44.47	47.35	47.59	48.54	48.21	47.58	47.94	48.31
원/ 달러	9353	1375.6	1354.7	1433.8	1460.1	1340.8	1260.4	1264.8	1279.9
페소/원	20.39	28.82	28.81	30.28	30.24	27.97	26.63	26.54	26.65

▣ 해외투자진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 안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12월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OIS내 '필리핀비즈니스 클럽(온라인 커뮤니티)'을 운영하고 있는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및 정보공유를 바랍니다.

- **주요제공정보:** 투자뉴스, 투자자료실, FAQ, Q&A 등
- **커뮤니티이용방법:** 홈페이지(www.ois.go.kr)에서 커뮤니티(카페명: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에 접속하고 커뮤니티 가입 후 정보 이용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변호사 무료 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해외투자진출 기업 및 기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진출 관련 제도 (법률, 노무, 세무) 및 경영 애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에 의한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필리핀 진출 기업 및 진출 추진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 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이메일: hanskim@kotra.or.kr
- 연락처: +63-2-893-3244,1183

무역투자 정보포탈 (Global Window) 안내

KOTRA는 한국기업의 무역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계 국가에서 무역관이 수집한 정보를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 해외진출정보를 제외한 일반 통상 비즈니스 정보를 국별(필리핀 등)로 검색 가능합니다.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필리핀 투자뉴스의 지난호를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 상기 안내드린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 / '필리핀 투자뉴스' 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신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

토지/웨어하우스 매각 정보: RELIANCE FARMS MARILAO PROPERTY

General Location and Description of Property

Property is located in Barangay Prenza II, Marilao, Bulacan. Marilao is a first class municipality bounded by the cities of Meycauyan and San Jose del Monte and Sta. Maria, Bulacan. It is about 25km from Manila.

The property was originally a 500 sow-level piggery which has been inoperational for the last 5 years or so. The property, which is enclosed by hollow-block fence measures 40,735m² and is covered by four land titles. The frontage is about 50 m wide and gradually expands as you go deeper as the property is irregularly shaped. Interior roadways are at level with the main road but slopes down to about 1~2 m at the housing pens. Buildings and facilities include a small office/residential building, a large warehouse, a stock room and a couple of small structures for utility use.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The property is accessible through public transportation via the 10m wide concreted provincial road. Electricity and telephone services are available. Water supply within the area is sourced through private deepwells.

Estimated Market Value

Selling price of the land at the subdivision immediately beside the farm is P 2,000.00 per square meter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A check with the barangay indicates that land prices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 Properties near the Reliance farm go from P800.00 per square meter and higher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and classification of the land.

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places the value of agro-industrial land in the area at P875.00/sqm based on the valuation schedule they issued 9 years ago.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x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s within the area, a conservative preliminary valuation of the property could be somewhere between P 1,000.00 ~ P 1,200.00 per square meter.